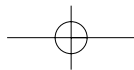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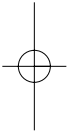


OCARIN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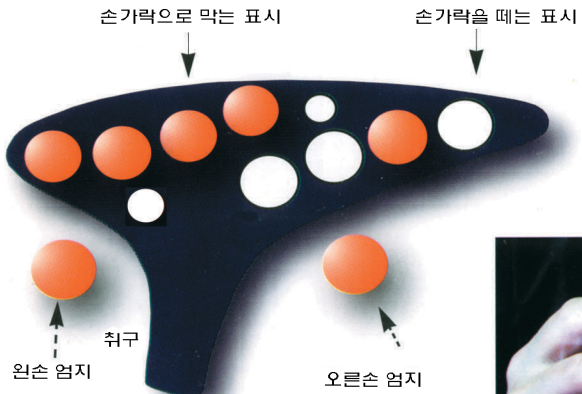


오카리나 음악사

도자기로 만든 피리의 역사는
기원전 3~4세기의 고대 문명사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.
당시의 피리는 손구멍이 적고 3~4개의 음계 밖에 없었다.
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카리나는 19세기 경 이태리 북부의
작은 마을인 볼로냐 (BOLOGNIA)에서 도나티(DONATI)가
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오카리나 (OCARINA)라는 말은
"어린 거위"라는 뜻으로 오카리나 하고 부르게 된 것이다.
소리는 소박하고 친숙미가 있으며 깊이 있는
아름다운 소리에 여행자들이나 방랑자들이 비엔나,
오스트리아, 독일, 프랑스, 스위스 등
세계 각국에 전파되게 된 것이다.
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더 좋은
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개량을 거듭,
그 모양이 조금은 변하였으며 현재의 모양은
치사 귀도 (CHIESA GUIDO)가 만든 악기로 3대째 전수 되어 온
장인으로 오카리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.
그후 유러비전 (EUROVISION) TV에서
오카리나가 소개된 이후 많은 나라에서 제작되고 있으며
근래에 이르러 NHK-TV "대황하"에서 맑고 깨끗한 음색을 선보여
더욱 유명한 악기가 된 것이다.
또한 프랑스의 오카리나, 팬플루트 연주 작곡가인 디에고 모데나 (D,Modena)의
내한 공연에서 "송 오브 오카리나" 연주는
오카리나의 신비함과 오카리나의
음악적 가치를 더욱 고양시킨 계기가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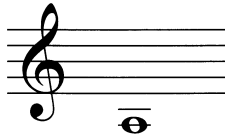


운지 그림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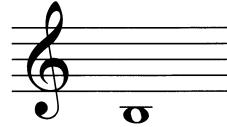


가장 낮은음 라(A),시(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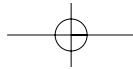
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라(A)포지션이
다르게 생신됩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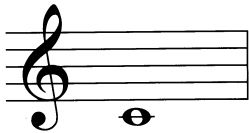
라(A)



시(B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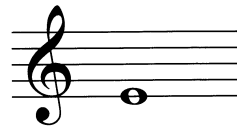
오른손으로 낼 수 있는 음 도(C), 레(D), 미(E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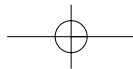
도(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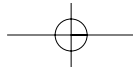


레(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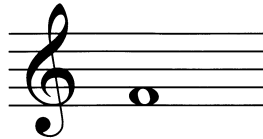


미 (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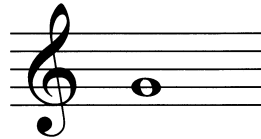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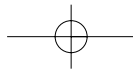
오른손으로 낼 수 있는 음 파(F), 솔(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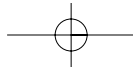


파 (F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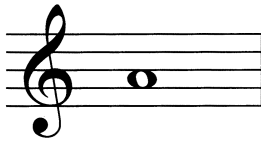


솔 (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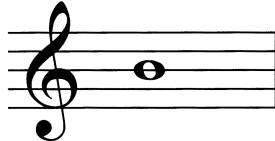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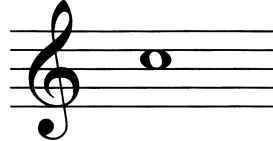
왼손으로 낼 수 있는 음 라(A), 시(B), 도(C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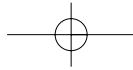
라(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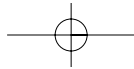


시(B)



도(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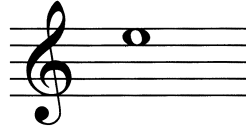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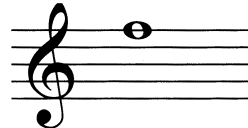
가장 높은 음 레(D), 미(E), 파(F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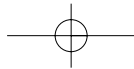
레(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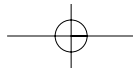


미(E)



파(F)





반음 도#(C#=Db) 레#(D#=E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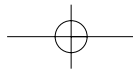
D#=Eb 경우 두가지 운지 방법이 있으나
음정이 확실한 우측 운지를 권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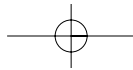


도#(C#=Db)



레# (D#=Eb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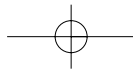
반음 파#(F#), 솔#(G#), 라#(A#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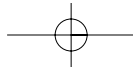


파# (F#)=솔b(G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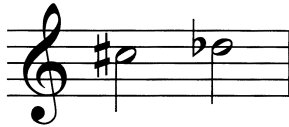
솔# (G#)=라b(Ab)

라# (A#)=시 b(Bb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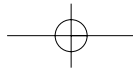
반음 도#(C#-Db), 레#(D#=E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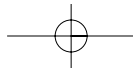


도#(C#=Db)



레#(D#=Eb)





에델바이스 (Edelweis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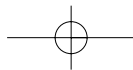
C G7 C G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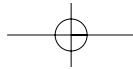
Tu Tu Tu Tu Tu Tu

C F G7

C G7 C F

C G7 C





G7 C

F D7 G7

C G7 C F

C G7 C

